

To hear, To listen

백여 년 전에 발명된 음악 녹음 기술과 현대의 인터넷 매체는 청중이 음악 감상에 접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현대사회에서 음악을 듣고 발견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고 신속해졌으며, 이는 청중을 능동적으로 만들고 그들의 규모 또한 확대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연주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고,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습방식마저도 급진적으로 변화시켰다. 학생들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긍정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to hear' 그리고 'to listen' 이 두 단어의 차이만큼이나 '제대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음악감상 2.0

연주회를 직접 듣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 현존하는 소리의 생생한 파장을 직접 체험하면서 느끼는 감동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하기 힘들다. 하지만 직접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CD나 컴퓨터로 재생이 가능한 파일로 감상할 수밖에 없는데, 요즘은 워낙 뛰어난 음질로 녹음되기 때문에 이 또한 매우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녹음(연주)을 들을 것인가'를 선택할 때에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여러 녹음을 들어봐야 한다. 특히 인터넷, 예를 들어 유튜브 같은 매체에서 항상 첫 번째로 나오는 녹음을 무조건 신뢰하려 들지 말아야 하고, 오래된 녹음 또한 선입견 없이 들도록 해야 한다. 오래된 녹음은 처음 대했을 때 음정 등이 이상하게 들릴 기묘할 수도 있으나 녹음 기술이 발명되면서 음반을 위해 선택된 소수의 거장(크라이슬러, 카잘스..)들이 누구였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소리이다. 지금도 남아있는 그들의 희귀한 녹음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 있기도 하지만, 특히 그 거장들의 프레이징이나 음악에 접근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현대 연주자들과 다르므로 더

다양한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녹음을 들을 것이냐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본능이나 우연을 따르는 것도 물론 괜찮은 일이다. 하지만 배우고 있는 선생님께 어떤 연주자의 연주를 듣는 게 바람직할지 여쭙 보도록 하자. 예를 들어 20세기 작곡자의 곡을 듣는 경우라면 작곡자가 당시에 특히 선호했던 연주자들의 연주를 우선적으로 들어야 할 것이다. 쇼스타코비치의 연주를 듣기 이전에 쇼스타코비치가 생전에 매우 존중하고 아끼던 연주자인 리히터나 오이스트라흐의 연주를 우선적으로 듣는 것처럼 말이다.

왜 듣는가

음악을 많이 듣는 것은 학생으로서의 음악적인 발전은 물론, 개개인의 문화적 범주를 깊고 넓게 만들 것이다. 주로 자신이 공부해야 할 음악을 찾아서 들어보게 될 텐데, 이 때 동일 작곡가의 다른 곡들, 다른 편성으로 작곡된 곡들까지 찾아서 들어볼수록 그 작곡가의 스타일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만약 비올리스트로서 바르토크 <비올라 협주곡>을 공부하면서 바르토크의 다른 곡을 전혀 들어보지 않았다면 곡을 처음 대할 때 그의 언어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그 작곡가의 성악곡을 듣는다면 작곡자가 원했던 프레이징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고, 특히 가사, 즉 언어가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음성학적으로 강박이 들어가야 할 곳과 들어가지 않아야 할 곳에 대해 더 자연스럽게 터득이 되어 연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협주곡의 경우 단순히 피아노 반주로 듣던 선율과 관현악 편성으로 들었을 때의 곡에 대한 이해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구조적으로 듣기

연주를 들을 때에는 일단 연주자의 해석에 귀 기울여 듣는다. 모든 루바토와 포르타멘토, 비브라토, 프레이징, 음색 표현 등을 세세히 듣는다. 악보를 처음 대할 때면 이해되지 않아 난처했던 점들이 발생하는데 이는 녹음을 통해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템포가 여러 번 바뀌는 곡에서 템포 변화 자체를 이해하고 그로 인한 전체적인 곡의 흐름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녹음 감상을 통해 훨씬 직접적이고 빠르게 체크할 수 있다. 또한 곡을 들을 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 작곡가는 곡을 작곡할 때 마치 건축가가 건물을 짓듯이 커다란 틀을 갖추고 작곡하기에, 곡 자체와 곡의 구조 전체를 느끼고 파악하는 시야를 갖추기 위해서는 곡 전부를 감상하도록 한다. 곡의 앞부분만 듣는 것은 마치 베르사유 궁전을 방문하여 대문만 구경하고 돌아가는 것과 다름없다.

새로운 곡을 공부할 때 누군가의 녹음을 듣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악보를 공부하는 일일 것이다. 악보라는 자료가 머릿속에 충분히 고려되고 숙지된 후에 다른 이의 연주를 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다른 이의 해석을 그대로 모방하는 위험을 방지하기도 하지만, 악보가 곡의 가장 근본적인 출처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작곡가가 곡을 작곡하며 연주자가 어떻게 연주하면 좋을지 자신의 바람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악보이고, 그렇기에 작곡가가 써넣은 기호와 용어들은 철저히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악보를 정독하는 것은 실내악에서 특히 중요하다. 실내악을 연주하는 각 연주자는 각자의 해석이나 음악적인 스타일을 갖춘 상태이다. 여기에 자신이 선호하는 음반을 듣고 그 해석에 익숙해져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각각의 개성으로 모인 연주자들이 그 혼돈을 극복하고 함께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악보만이 이정표가 될 수 있다.

Only classic?

음악을 듣는 것은 '상상력을 키우는 비료'와 같은 것이다. 많은 작곡자들이 클래식 음악만 들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바로크 시대의 작곡자들도 민속음악에서 영감을 얻기도 했으며(예를 들어 '부레'는 농부들의 춤곡이었다.), 라벨의 집에서 발견된, 생전에 그가 즐겨 들었던 LP들에는 놀랍게도 많은 상송 음반과 재즈 음반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전통음악 음반들이 있었다. 바르토크와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은 각각 동유럽과 북아프리카의 음악적 언어와 러시아 민속음악의 음악적 언어에 기원하고 있다. 작곡자들이 얼마나 다양한 음악적 스타일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안다면 연주자 또한 음악 감상에 있어 편식하지 않는 것이 제대로 된 음악적 표현의 바탕을 얻는 데에 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음악에 있어 하위 음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클래식 음악 연주에서 흔히 잃기 쉬운 스윙감을 얻기 위해서 50년대의 재즈를 감상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고, 무대에서의 아티스트의 존재감을 알기 위해서 힙합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감상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음악을 감상하는 것은 매일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경탄하게 하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것이다. ♪

글·에르완 리샤 Erwan Richard

-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파리 국립고등음악원 최우수 졸업, 런던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부수석, 인스브루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종신 수석 역임
- 현재 강남대학교 독일 바이마르 음악학부 교수, 오푸스 앙상블 멤버, 에라토 앙상블 멤버, 현대음악앙상블 소리 멤버, 코리아나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 멤버, 화음 챔버 오케스트라 멤버

